

근대역사·항구 특색 살린 도시재생 본격화



목포시는 사업비 54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원도심을 중심으로 25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1897 개항 문화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인 만호동(왼쪽)과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전경.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만호동 개항의 거리 조성하고 서산동 문화가 있는 마을로 시, 2022년까지 540억원 투입 원도심 살려 삶의 질 개선

‘목포 근대역사와 항구마을’의 특색을 살린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2일 목포시는 쇠퇴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사업비 54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목포 만호동(1897 개항 문화의 거리)과 서산동(보리마당) 일대를 중심으로 25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은 김중식 시장이 취임 이후 밝혀왔던 ‘목포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의 핵심이자 민선 7기 역점 과제인 ‘케·문·도·맛’ (케이볼카+문화재+도시재생+맛의 도시)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김 시장은 각종 구상들을 밝혀왔지만 사실상 목포시 재정 여건상 구체화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김 시장은 도시재생 2개 뉴딜사업비 540억원과 근대역사문화공간조성 사업비 500억원 등 1000

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원도심 일대에 집중 투입, 전국 도시재생사업의 롤 모델로 만들고 이를 민선 7기의 성과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번 2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 여부가 민선 7기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호동 도시재생 사업은 1897년 개항 이후 보존된 근대 역사문화 자산들을 활용해 당시 모습을 재현한 개항의 거리를 만드는 것이 핵심 골자다.

만호동과 유달동 일대에 청년 어울림마당과 역사공원이 조성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택 정비사업도 펼쳐진다.

또 개항 이후 항구마을이 들어선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사업은 항구 기능을 연계해 도시를 활성화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허름한 주택과 골목길을 단정하고 주차장 조성 등 정주여건을 개선해 낙후된 지역을 문화가 있는 마을로 탈바꿈시킨다는 게 목포시의 구상이다.

목포시는 올해 말까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활성화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지난 달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동체 활성화’ (용역비 1억9000만원)과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동체 활성화’ (9700만원)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주민주도의 지역자치 실현에 한계가 있고 거버넌스 구축 단계에서 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역량이 부족해, 주민과 지역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공동체 활성화 과업을 통한 주민이 주체가 되는 재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목포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및 민·관 네트워크 구축 ▲재생 사업 주체와 협력체계 구축(거버넌스 기반 마련)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상생 협력 지원 ▲현장 지원센터 내 소모방 운영 등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우선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주민 대면활동과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재생사업 공감대 형성을 위한 비정기적 간담회 개최도 추진한다.

또 소주자, 세입자, 상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관리 프로세스 구축과 함께 상호간에 윈윈한 해결점을 찾는 조정체계로 통합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거버넌스 기반 마련에 나선다.

아울러 상가별 젠트리피케이션 인식 공유를 위한 주민설명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상가별 임대차 계약 추진사항 모니터링을 실시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도 힘을 쏟는다.

목포시 도시발전 사업단장은 “작년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두 곳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해나가면서 내년부터 사업비 544억원을 들여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김중식 목포시장이 최근 달리도를 찾아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2019 여촌 뉴딜 300’ 사업과 슬로우시티 조성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목포시 제공>

달리도 ‘슬로우 아일랜드’ 조성 추진

‘휴양+수산특화’ 복합형 개발

목포시가 섬 지역의 해상교통 현대화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달리도항-어망촌항 ‘슬로우 아일랜드 조성’ 사업에 힘을 쏟는다.

2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2019 여촌 뉴딜 300’에 달리도 슬로우 아일랜드 조성사업이 응모, 지난달 14일 실시된 현장평가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아 선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선정 결과는 이달 말 발표된다.

달리도 슬로우 아일랜드 조성 사업은 ‘국민휴양+수산특화’ 복합형으로 어촌어장 현대화사업(공통)과 특화사업이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 어촌어장 현대화사업에는 달리도항과 어망촌항의 집안시설과 물양장 확장, 어구 보관 창고 건립, 달리도 웰컴센터 부대시설 조성 등이 포함됐다.

또 특화사업으로 달리도 달섬 슬로우센터 조성, 외달도 별섬 정월 조성, 무화과 체험공원 및 가공 공장 설치, 바다 낚시터 조성, 탐방로 정비 느린 걸음 정류장 설치, 사재산 전망대 조성, 달리도 소금공장(체험장) 조성 등이 추진된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는 이 사업에는 총 136억원(국비 95억, 도비 12억, 시비 29억)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를 위해 목포시는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 10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김중식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달리도 외달도 슬로우 시티 조성 사업과 연계돼 해양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김중식 목포시장은 최근 달리도 현지를 방문,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2019 여촌 뉴딜 300’ 사업과 슬로우 시티조성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

씨월드고속훼리, 해양안전 공모전 최우수상

목포와 제주, 해남 우수영 추자 항로 등의 배역을 운영하는 씨월드고속훼리(주)가 해양안전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2일 씨월드고속훼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민의 해양안전 정책참여 기회 확대와 해양안전문화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진행한 ‘2018 국민 참여 해양안전 공모전’에서 ‘안전한 수확여행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 안전교육’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씨월드고속훼리는 1998년 운항 이래 선박사고 전무(全無) 선사로 ‘승객의 안전이 우리의 안전이며, 경영의 최우선 과제이다’란 기업 마인드로 모든 경영에 안전과 고객 서비스를 중시하고 있다.

안전교육은 세월호 사고 이후 불거진 선박안전 불신과 불안감 확산에 따른 학생들의 선박 이용 기피,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의 선박안전 의구심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씨월드고속훼리 퀸 메리호.

씨월드고속훼리의 전문 안전 교관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선박안전 동영상 상영하고, 비상시 구명조끼 착용법과 비상탈출요령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52개교 9500여 명의 수확여행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했다.

씨월드고속훼리는 올해 174개교 2만 4천여명의 제주도 수확여행 학생을 태우는 등 제주 기점 선사 중 최대 수송량을 기록했다. /목포=김준서 기자 kjs0533@

기부와 나눔이 있는 ‘만호동 129마트’ 호응

복지사각지대 주민 위해 운영

목포 지역 한 동사무소가 행정복지센터 전환이후 첫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과의 나눔을 실천해 롤 모델이 되고 있다.

주인공은 만호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나승업)로, 지난달 22일 ‘만호동 129 마트’를 개장했다.

보건복지부 생활권관 신고 콜센터 번호(129)를 차용한 이름부터가 신선하다.

129마트는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례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취지로 만호동 지역보장

협의체가 주축이 돼 탄생했다.

이곳에는 쌀, 소금, 라면, 식용유, 밀가루, 과자류 등에서부터 장난감, 서적, 의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이 진열돼 있다.

이들 품목은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역보장협의체와 자생조직을 비롯한 관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기부실천으로 이뤄졌다.

만호동 복지센터 1층에 마련된 이 마트는 연중 상시 운영된다. 무엇보다 이용을 꺼려하는 주민들의 자존심을 배려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출입구도 만들었다.



목포시 만호동 행정복지센터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위해 ‘129 마트’를 개장, 나눔을 실천해 롤모델이 되고 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또 가장 많이 찾는 쌀의 경우 다수의 주민들이 골고루 가져갈 수 있게 4인분씩 소포장으로 재포장해 비치해 놓은 점도 눈에

떨다.

특히 만호동은 129 마트 개장일인 11월 22일을 자체 ‘나눔과 함께하는날’로 지정해 매년 기부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나승업 만호동장은 “지역 주민 3400명 중 생계 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만 1600명에 달한다”며 “개장 이후 하루 평균 1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Approved Partner | HEARING INSTRUMENT | SIEMENS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1566-9988

돋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돋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극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옛.밝은광주안과